



차세대 차인 고 있다

‘어른들 문화’로 여던 차계 청소년 바람 활발
차준비 과정 통해 마음 안정 한 인성교육
자기의사 표현의 열린대화법 자연스 체

다도, 다례, 차살림. 차 마시는 일을 일 는
는 다르지만, 차를 마심으로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추구한다는 행위의 목적은 을 이다.
하지만 그동안 복 한 질차와 엄숙한 분위기
에 ‘어른들만의 문화’로만 여 던 차계에 다
도를 배우려는 청소년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국차문화협회(이사장 이귀례)와 가천문화
재단(이사장 이길여)이 매년 6월 개최하는 ‘인
설 차문화전-차 예절 경연대회’에는 유치부
에서 대학부까지 5개 부문에 쳐 400-500여 명
의 청소년들이 가한다. 22일 인천종합문화예
관에서 열리는 ‘제4회 인설차문화전’에도 400
여 명의 가자들이 저마다의 기량을 선보일 예
정이다. 이 행사는 지난 2000년, 인스 음식
과 컴퓨터에 속해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차문
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차예절을 통한 심성 개발
을 위해 처음 개최 다. 한국차문화협회(이
사장 박권)가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대한민
국 청소년 차문화대전’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차의 의미와 가치를 심어주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다도 교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학교나 복지단체를 방문해 다도를 가르치는 단

체들도 있다. 한국차문화협회와 가천문화재단
은 문화관광부의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일환
으로 2001년부터 방학 때 마다 전국의 문화소
외지역과 국군장병들에게 무료 차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10만여 명이 다도 교육
을 받 다. 가천문화재단의 어린이 예절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남유경 주임은 “다도교육은
피나 라 등의 음료수에만 빠져있는 청소년들
에게 차 한 마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일깨
준다. 이 가장 장점이다”고 한다.
수원차인회(회장 강성규)의 ‘소년원 차예절
교육’은 다도의 다른 적용범주를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다. 1992년부터 매월 소년원인 안양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를 방문해 다도와 예절
을 지도하고 있는 수원차인회 강성규 회장은
“차를 마시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다 보면 마
음이 차분해집니다. 정서가 불안정한 원생들에
게 다도는 가장 좋은 인성교육인 ”이라고
한다.
‘차 열풍’은 대학가도 예외가 아니다. 학교에
정식 등록된 차 동아리만도 동국대 ‘서라 다
우회’를 비 해 전남대 ‘남도차문화회’, 경상대

‘로다우회’ 등 전국적으로 50여 곳이 는다.
다도를 통한 예절교육도 놓을 수 없는 부분
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불교 종립학교 교학연
구발표회에서 ‘선()지도의 내면화를 통
한 불교 교육방안’을 발표한 이동배 정광고등
학교 교법사는 “중·고등학교마다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인성교육을 는 다도 교
육이 도입 야 한다”고 주장 다. 차를
기는 분위기에서 자 학생들은 사람
이나 손님을 대하는 예절을 배우게 되
고, 평등을 추구하는 자리의 특성상
남의 을 경청하며 자기 의사를 표현
하는 열린 대화법을 자연스 체 하
게 된다는 이다.
청소년 다도 특강을 실시하고 있는 명
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은 “차를 마시
는 일은 손님을 맞는 부터 는 자세, 절
하는 법, 다기 다 는 법까지 ‘예()’ 야
이 없으 로 청소년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예절교육이 된다”고 한다. 김 이사장은
“최근 청소년들에게 일기 시작한 차에 대
한 관심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
기 위해서는 전문 차인 양성과 을
바른 차문화 확산을 위한 각계
의 노력이 받쳐되어야 한
다”고 었다.
여수령 기자



차백 지킴이

박권
(한국차인연합회 이사장)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세 차례(10, 11, 12대) 국회의원
을 지 한국차인연합회 박권 (71) 이사장. 언론과 정치차
는 순 차만은 많은 길을 돌아 그가 안 한 곳이 바로 ‘차
()’다. 1992년 한국차인연합회장직을 은 후, 11년 동안
차인연합회를 이 며 국제대회 유치와 한국다도대학원 설
립(1994년) 등 차문화 중 에 앞장 서 온 박 이사장을 만나
차문화 발전을 위한 차 단체들과 정부의 노력, 청소년 다도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들어 다.

‘차의 정신’을 정의해 주신다면?
‘초의 선사는 ‘중정(中)의 도에 의해 다도가 이
저 야 한다’고 습니다. 드러내고자 하는 이 없는 차 은 마
시는 이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이지요. 진정 차를 기고
음미할 아는 이 바로 ‘차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차인연합회 활동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1979년 설립된 차인연합회는 차의 명맥이 어질 위
기에 놓였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 차단체입니다. 그
동안 국제대회도 유치하고 지부도 전국 200여 개의 차회로
어나면서 그 기 을 싣히 다져 습니다. 94년 설립된
다도대학원을 수료한 차인들은 전국에서 차회를 결성하고
차문화를 보급하는 등 차 지도자 배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도대학원, 지도자 배출 중추적 역할 인재양성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 자연스러운 ‘생활문화’로 거듭나야

사명당기념사업회 수석부회장 소임도 고 계신데요.
“승군으로 리 알려져 있는 사명대사는 차인으로서
의 면모도 대단합니다. 올해 9월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
된 사명대사를 기념하기 위해 차인연합회에서는 사명대사
가 승병을 련시 던 강원도 고성군 건봉사에서 사명대사
모 공다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차문화 발전을 위해 정부나 차 단체들이 해야 할 일은
무 입니까?
“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차산업 발전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 에 비해 정부 차원의 정책은 많이
부족합니다. 정부와 차단체들이 전문가와 지도자들을 길러
내야 하고 우리 차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
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차 생산업체들간의 연합
회가 성되지 않은 도야 운 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차문화를 보급해야 하는 이유는 무 입
니까?
“한 의 차에도 떡과 예를 중하던 우리의 정신문화
가 담 있습니다. 차를 나 면서 상대방을 위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게 되는 이 . 청소년이 자연스 게 차문화를
접하게 필요로 차문화가 구나 생활 속에서 길 수 있
는 ‘생활문화’로 거듭나게 입니다.”

우리차
불성차
지리산 야생 차
에서 자 어린
을 손수 채취해 동
()가마에서 어
전통 수제차로 어
과 향이 어우러진
이 특징이다. 제조:
불성제다. 값 9만원.
(02)732-1520

작설차 제조 비법 법정공방
지허스님-전통식품 명인 신광수씨
이 새의 를 다고 해서 이름 여
진 ‘작설차()’의 제조 비법을 놓고 법정공
방이 어지게 다.
전 선암사 주지 용 스님의 아들이자 립부
지정 전통식품 명인인 신광수 씨는 최근 <지허
스님의 차 >라는 책을 지허스님(선암사
주지)과 출판사인 김명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
해배상 청구소송을 2일 서울지법에 다.

신씨-“비법, 정부인정 명인지정 잘못” 명예 손
지허스님-“ 립부의 올바른 인식 필요주장 을 ”
신 씨는 소장에서 “내가 오 기간의 수행으
로 독특한 작설차 제조비법을 전통식품 명
인의 반열에까지 을 는데 피고는 ‘작설차’를 만
드는 방법은 전통적 차제조법 한가지 에 없는
데도 특별한 비법이 있는 처 정부가 인정해
명인으로 지정한 건 잘못 다”는 내용의 책을
내 명예를 손 다”고 주장 다.
이에 지허 스님은 “나는 책에서 한국 전통차

문화의 을 기 위해 립부가 작설차에 대
한 올바른 인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 을 이
며, 원고의 이름과 원고가 판매하는 작설차 상
표를 직접 거론하지 않 다”고 반박 다.
한편 신 씨는 지난해 10월 문화관광부에 전통
차 제조에 대한 중요 무 문화재 지정 신청을
고, 지허스님도 한 달 은 신청을 다.
여수령 기자

정신과 육체 두뇌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신비의 요가

자격증을 위한 특별 강좌

요가의 효능 및 방법
바른 자세와 호흡을 통하여 폐와 내장기관을 청소해 해맞이 운동 12가지를 전개하면 다음과 은 효과가 나타난다.

개강일시 및 장소
▶ 서울 : 6월 3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6개월 간)
▶ 기 : 6월 8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6개월 간)

물구나무서기(Sirshasan)
기억력, 사고력, 집중력이 강화되고 시력, 청력이 좋아지며 신경이 해진다.

추골세우기(Sarangasan)
상선, 심장혈압, 비만에 좋고 목과 가슴부위가 해지고 불면증, 우울증이 치료된다.

기포 (Halasan)
등, 어깨, 팔, 근육이 강화되고 소화가 잘되며 비, 불면증이 없어진다.

물고기자세(Matsyasan)
혈액순환이 잘 되고 폐활량이 어나고 은 어깨가 지고 중추신경이 발달하여 충치가 예방된다.

앞으로 히기(Paschimothasan)
비만을 치료하고 소화력을 높이고 마디를 부드럽게 하고 당뇨병을 치료한다.

라(Bhujangasan)
추를 하게 하고 요통 류마치스를 치료하며 체온조절이 잘 되 자궁이 해진다.

기운동(Salabhasan)
장, 장, 간장 등을 하게 하고 허리, 등, 팔을 유연하게 한다.

활(Dhanurasan)
만성 비, 소화불량, 간무력에 좋고 은 를 준다.

추반비 기(Ardha · matsenbrasan)
힘 이 지고 혈액공급이 원활해지며 특히 관절에 좋다.

까마귀포 (Kakasan)
팔과 목 어깨를 하게 하고 손가락, 팔목, 근육이 어나 무기력증이 없어진다.

손과 발포 (Padahasthasan)
허 지 가 부드러 지고 체지방이 없어지며 두뇌에 혈액 공급이 잘 된다.

각 (Thikonasan)
월경불순, 절전강에 좋으며 추신경과 내장기관이 좋아진다.

세계전통요가실천본부 · 세계젠요가학교
본 부 : 경기 화성시 동 면 중리 213번지 / 전화 031) 375-0778
서울교육원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한국불교금강선원 02) 969-2410